

야음정음, 문자의 반격

전문가 칼럼

김진해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새로울 것 없고 그저 새삼스러울 뿐이다. 역시나 올해도 말의 파괴와 몰락을 걱정하는 잔소리꾼들의 목소리가 높다. 1년에 한 번 서는 장날을 만난 것처럼, 이들은 병든 한글과 한국어를 걱정하고 이를 망가뜨리는 ‘짧은 것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한다. 말에는 모종의 질서가 있고 그 질서의 균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름답고 순수하며 필연적으로 그렇게 써야만 하는 상태’를 만나며 이것을 허트리뜨리는 것은 말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눈으로 보면, 말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란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귀착된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귀착될 때 위험하고 재미없다.

‘외국어 남용, 신조어, 줄임말, 사물 준대, 외계어, 보그병신체, 급식체’에 이어 올해의 죄인은 ‘야음정음’이다. 악필인 사람은 안다. 내가 쓴 글씨를 다른 사람이 잘못 읽을 때의 낭패감을. ‘하’를 ‘라’로, ‘발’을 ‘박’으로, ‘모례’를 ‘오례’로 읽고, 급기야 ‘별을 노래하는 마음’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고 읽으면 불펜을 집어던지게 된다.

야음정음은 이런 오독을 새 표기법의 반열로 격상시킨다. ‘댕댕이(멍멍이)’, ‘커여워(귀여워)’, ‘경희미(경희대)’,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세종마왕(세종대왕)’, ‘유재석(유재석)’, ‘광광 우력파(광광 울었다)’, ‘꼬끼솟(꼬끼솟; 피가 거꾸로 솟는다)’, ‘박근혜(박근혜)’, ‘ㄹ의 공식(근의 공식)’, ‘앵귀리지(앵거리지)’, ‘鞬선(복복선)’, ‘뜨또(비벼)’, ‘읊높(폭풍)’, ‘롬곡(눈물)’. 이런 예들은 비슷하게 생긴 문자를 비틀어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문자의 안온한 질서를 흔든다(댕댕이). 음절을 자음 하나로 바꾸기도 하고(박근혜), 두 음절을 한 음절로 구겨 넣기도 한다(鞬선). 90도로 기울이거나(뜨또) 아예



“
야민정음은 문자가 말소리의 노예에 머무르지 않고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문자가 말소리와 어긋나고, 이미지가 문자가 되는 등,
문자의 반란은 계속될 것이다.”

180도 뒤집어야 읽히는 것(읊높)도 성을 밀어붙인다. 주변을 둘러보라. 있다. 빠르게 읽히던 글은 아리송해지고 서걱거린다. 야민정음은 문자의 기능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우리에게 ‘문자’는 뭔가? 아마도 문자는 말소리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문자의 원래 기능은 말과 무조건적으로 밀착되어 있다. 문자는 말을 기록하는 수 단일 뿐이다. 말이 먼저고 문자는 나중이다. 문자는 목소리를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 야음정음은 이러한 상식에 반격을 가한다. 문자가 언어를 반영한다는 상식에 대한 물음표를 던진다. 야민정음은 언어를 적는 문자라는 서구의 오래된 개념에 도전한다.

문자는 단순히 구술언어를 그대로 전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문자가 말소리의 노예에 머무르지 않고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문자는 말소리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문자 자체가 회화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되어 문자의 고유

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이다. 독자로서의 오독에서 출발하여 저자로서 오독을 요구하는 이중적 전략은 우리에게 문자의 성격에 대해 다시 묻는다. 말하기도 회자와 청자가 각자 처한 상황이나 위치, 지식과 견해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이해한다. 언어적, 언어외적 맥락은 서로의 ‘의사’를 배반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게 한다. 오독으로 이루어진 소통은 그래서 적당한 타협이나 얼버무림, 또는 실패로 끝난다. 야민정음은 문자의 오독을 전시함으로써 문자와 말소리의 자명한 관계를 문제제시한다.

어찌 보면 야민정음에서 말소리(발음)는 중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댕댕이’를 ‘멍멍이’로 읽을지, ‘댕댕이’로 읽을지는 중요하지 않다. ‘박근혜’는 ‘박리율혜’로 읽는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 애초에 이들에겐 말소리(발음)가 아니라, 문자 자체의 구성과 조합만이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문자 자체를 비트는 것으로 끌이지 ‘문자-말소리’ 간의 체계적 관계나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다.

망치가 없어 벽돌로 뭇을 박았다고 해서 벽돌이 타락했다고 하지 않는다. 문자가 말소리와 밀착되지 않고 멀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을 자극하며 나른한 오후를 일깨운다. 더구나 망치가 변연히 옆에 있어도 굳이 벽돌로 뭇을 박는 빼딱한 사람들이 있어 좋다.

* 야민정음(야음정음) : 최근 온라인 상에서 퍼지고 있는 은어로, 어떤 단어의 글자들을 모양이 비슷한 글자들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한다.

참여마당

김동현
(사회학 2016)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식’

최근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사연이 제보됐다. 학과와 학번, 소속 동아리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이를 두 글자까지 공개하며 한 사람을 고발한 대자보였다. 글쓴이는 자신이 대상자의 전 애인이라고 밝히며 대상자의 범죄적 행위를 규탄했다. 글은 게시된 지 1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큰 논란을 불렀다.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탓도 있겠지만 내가 가장 놀랐던 것은 충격적인 내용 때문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이 글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글이 게시된 커뮤니티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이 글 전부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가정하고 당사자를 비난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9월 중순, 버스를 세워주지 않았다는 목격자의 일방적인 폭로로 시작된 ‘240번 버스 기사 사건’이 그렇다. 폭로는 순식간에 퍼졌고 버스 기사는 구설수에 올랐다. 심지어 이를 날에는 청와대 청원제시판에 해당 버스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경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CCTV를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버스 기사는 규정대로 버스를 운행했고, 아이가 승객에게 떠밀려 내렸다는 아이 엄마의 주장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사건 발단의 책임은 편향적이고 자극적인 글을 작성한 목격자에게 있었다.

9월 말 업무에 복귀한 버스 기사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흘쯤 되니 240번 버스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싹 사라졌다”며 “남은 건 상처 입은 나 자신 뿐”이라고 전했다. 당시 여론은 버스 기사를 얼마나 몰인정하고 상식 없는 인간으로 매장해버렸는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자는 소수의 목소리는 기사를 욕하는 다수의 목소리에 묻혔다. 우리는 이 부끄러운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만 한다. 버스 기사가 말한 대로 분별없는 마녀사냥이 남기는 것은 상처 입은 당사자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어딘가에서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읽은 적이 있다. 동일한 내용의 두 기사에 한 쪽은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한 쪽은 긍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의도적으로 작성한 후 여론의 동향을 살폈다는 것이다.

실험 결과 똑같은 기사를 읽은 이들의 반응은 기사에 달린 댓글과 일치했다. 군중심리 때문이다. 군중심리는 개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단위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동아시아처럼 집단주의의 경향이 강한 사회일수록 곳곳에 더 만연해있다.

한국 시민들이 이제는 사실관계도 모르는 주장들에 함부로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합법적인 독재자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히틀러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군중심리가 국가 중대사와 결부되었을 때 그 결말이 얼마나 파국적인지를 역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시류에 아무렇지도 않게 편승하는 것이야말로 플라톤이 우려했던 중우정치의 현실화가 아닐까. 민주주의가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혼명해야 한다. 시민의식이 더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과분하지 않은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인 것이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